

한국수산벤처대학 12기 수료식•13기 입학식

'19. 3. 14.(목) 14:30 / 조선대 해양생물연구센터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입학식 및 수료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있는 우리에게 수산 분야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섭취하는 단백질의 40%는 바다를 통해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해 모든 생태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온도 변화에 민감한 수산 분야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관찰하고, 그에 걸맞은 양식기법 등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수산벤처대학을 수료하고, 입학하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수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 시킬 미래의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학업을 이수하시는 수료생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위해 입학하는 제13기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산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설립된 한국수산벤처대학은 지난 2007년 3월 개교한 이래로 지금까지 *850여명의 수산전문인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은 대학에서의 배움을 토대로 양식, 유통, 가공 등 여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은 수산업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국수산벤처대학 수료생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은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입춘을 지나 이제 낮에는 제법 따듯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완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조류 등을 활용한 ‘해양헬스케어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융합한 해양분야의 신산업이자,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등으로 과거 어종의 생태계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현재 전국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전복양식업을 대체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김, 다시마, 미역, 툇 등 해조류 양식산업으로 점차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수산군의 위상에 걸맞은 해조류 양식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그로 인한 상당한 경제적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경제 중심의 산업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수산벤처대학 수료와 입학 을 축하드리며,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에 선봉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14일